

우리투자증권, '핵심인재 영입'으로 MTS 고도화 전략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포스증권 합병에도 추가 투자 필요
출범 10년 내 업계 톱10 IB 목표
기존 증권사, 인재 유출 단속 나서

8월 우리투자증권으로 '부활'을 예고한 우리종합금융이 핵심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투자은행(IB) 부문 인력 충원은 물론이고 정보기술(IT) 전문 인력을 모아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범대우증권 출신들이 우리금융으로 다수 옮겨가며 빠르게 기반을 잡는 모습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 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7월 중에 감독당국의 합병 인가 승인이 나면 포스증권의 주주총회와 우리금융의 이사회를 거쳐 8월 중에는 통합된 우리금융



우리금융그룹 본점 /우리금융그룹

계열 증권사 출범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를 대비해 우리금융은 핵심 전문 인력 충원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증권이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이름을 알리고 기존 직원을 우리금융이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은 리테일 기반 소형 증권사로 여겨지는 만큼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태다.

'출범 10년 내 업계 톱10에 드는 초대형IB'를 목표로 하는 우리금융은 인재 영입이 한창이다. 지난달에는 박현주 전무를 캐피탈마켓(CM)본부장으로 선임했고 앞선 3월에는 대우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대표를 역임한 이영창 사외이사, 양완규 IB총괄 겸 기업금융1본부 총괄이사, 김범규 디지털본부장, 홍순만 인사본부장, 김진수 경영기획본부장을 영입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임원급 인력들이 과거 대우증권 출신이라는 점이다. 남

기천 우리증권 사장부터, 양완규 부사장, 이영창 사외이사, 박현주 CM본부장 등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포스증권이라는 증권사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중 증권사들에게 밀리는 건 사실"이라며 "우리'라는 브랜드를 필두로 회사를 안정적으로 키우려면 과거 증권사 경험이 있는 임원과 직원을 영입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성장의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금융은 MTS 고도화 전략으로 중개시장 내 입지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증권사에서 IT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과 MTS 기획이나 개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인력 채용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앞서 우리금융은 포스증권의 '펀드수퍼마켓' 애플리케이션과 우리금융 앱과 주식거래시스템, 원더링(투자정보 플랫폼)이 탑재된 MTS 구축을 준비하

고 있다. 오는 11월 출시 예정인 우리금융의 슈퍼앱 '뉴원'과 연계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복안에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아직 공채 형식의 채용을 내지는 않았다"면서도 "당국의 인가가 난 뒤에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증권사들은 인재들이 우리금융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고 내부 단속을 하는 분위기도 전해진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우증권 출신 중심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IT인력은 다른 업체를 통해서도 많이 구할 수 있지만 증권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을 선호하기에 기존 증권사에서도 인재 유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밸류업 수혜 은행株, 하반기도 상승 기대

주가 급등에도 PBR 낮은 수준
주주환원책 나올 가능성 높아
전문가 최선호주 'KB금융지주'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주가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은행주가 저평가된 데다 주주환원이 기대되고 있어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은행지수는 상반기에 20%가량 증가했다. 개별종목으로 살펴보면 KB금융이 45%로 가장 크게 올랐으며 하나금융지주가 40%로 뒤를 이었다. 신한지주(20%), 기업은행(18%), 우리금융지주(13%) 등도 두 자릿수의 상승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5%가량 증가한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실적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주이자 저평가자산비율

(PBR) 대표주로 꼽힌 점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으로, PBR이 1배 미만이면 주가 수준이 기업의 자산 가치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올해 은행주들은 주가가 급등했는데도 여전히 PBR은 낮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하반기에도 은행주가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내 금융지주들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여파에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데다 하반기에도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환원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전망한 4대 금융지주의 올 2분기 순이익은 4조6418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2분기(4조3765억원)보다 10% 가까이 증가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금융지주들의 2분기 실적은 우려와 달리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를 웃돌 가능

성이 커졌다"며 "정부의 밸류업의지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시장 예상 수준의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KB금융지주를 최선호주로 꼽았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KB금융은 지난 2월에 이어 곧 자사주 3200억원 이상 매입·소각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통주자본비율(CET1비율)이 2분기에도 13%를 충분히 웃돌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사주 매입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3200억원 매입 및 소각 기준 올해 총주주환율은 38%로, 매입 규모에 따라 40%도 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주 중 가장 PBR이 높지만, 이는 자본비율이나 이익 안정성, 주주환원 정책의 우위가 반영된 것"이라며 "우위 요인이 약화하기 전까지는 밸류에이션프리미엄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엔비디아 고점론에도 AI반도체 투심 '여전'

해외주식 Click

엔비디아 6485만달러 사들여
주가 급등 이후 8.31% 떨어지
반도체 관련 종목 주가 조정

엔비디아의 주가가 휘청이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학개미들은 투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매수 상위 종목에 AI반도체주를 포진시키는 등 '제2의 테슬라'가 등장한 모습이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6월 25일~7월 1일)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를 6485만달러(900억원) 사들였다. 고공행진하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주춤함에도 투자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주에는 엔비디아의 수익률을 1.5배 추종하는 '그레닛쉐어지 1.5배 롱 엔비디아데일리' 상장지수펀드(ETF)도 1억8251만달러(2533억원) 순매수하면서 2번째로 많이 사들였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들어 약 140% 가량 상승하면서 광풍을 몰고 왔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간)에는 미국 뉴욕 증시에서 전장보다 3.51% 급등한 135.58달러에 마감하며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이후 현재까지 8.31% 떨어지면서 숨고르기에 들

어갔다.

이경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FICC 리서치부 부장은 "엔비디아가 최근 하락세를 보였는데, 앞서 3월에도 급락 후 다시 반등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인다"면서도 "엔비디아 실적 모멘텀이 둔화하고 있어 AI반도체주가 지극히 조심할지는 두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은 AI반도체에 대한 강한 투심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주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역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볼 3배' ETF로 3억2850만달러(4560억원)를 사들였다. 순매수 상위 3위에 해당하는 마이크로(1억5114만달러)도 AI반도체주다. 최근 엔비디아 고점론 등 AI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고평가 논란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은 이 시기를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메타를 비롯한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센터 보유 회사)의 투자가 약해지거나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훼손되기 전까지 엔비디아의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

신한투자증권 사옥 이사 기념 특판 DLB 출시

신한투자증권은 사옥 이사(ISA)기념 세전 연 5.5% 특판 파생결합사채(DLB)를 7월 1일~5일, 8월 5일~9일, 9월 2일~6일 회차별 100억원씩 총 300억원 규모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판DLB는 국고채 3개월 금리(KTB3M)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최대 세전 연 5.51% ~ 최소 세전 연 5.5%를 지급하는 3개월 만기 원금지급형(Digital) 상품이다. 만기 평가가격이 10% 이상인 경우 세전 연 5.51% 수익을 지급하고, 만기 평가가격이 10% 미만인 경우 세전 연 5.5% 수익을 지급한다. 단,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삼성증권, 우수 고객 대상 자산관리 세미나

'AI 시대 투자전략' 주제

삼성증권은 오는 9일 인공지능(AI) 시대 투자전략을 주제로 '2024 하반기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개최 예정인 이번 세미나는 삼성증권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자의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강연은 최재봉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가 연사로 나선다. 'AI사피엔스 시대 생존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의 개화에 있어 미래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개할 예정이다. 최근 발간한 'AI사피엔스'의 저자이기도 한 최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대연합 디지털소사

이어티 최고위원을 역임한 우리나라 AI 분야의 대표 전문가이다.

뒤를 이어 이종욱 삼성증권 비상장솔루션팀장과 정명지 채널솔루션전략팀장이 나서 'AI Tech 투자전략'을 주제로 고객들에게 투자인사이트를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김예나 삼성증권 Tax센터 센터장이 '자산가의 절세 트렌드 비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세미나장 옆 부스에서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들의 일대일 세무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대격변의 AI 시대를 맞이해 이러한 트렌드에서 필요한 생존전략과 투자전략은 무엇인지 고민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한투증권, 해외선물·옵션 수수료 할인 행사

온라인 전용 거래 '뱅크스' 고객 대상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전용 거래서비스 '뱅크스'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선물·옵션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해외 선물·옵션 신규 고객 또는 3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 고객에게 이벤트 신청일부 6개월 간 온라인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적용

시 1계약당 수수료는 마이크로 해외선물 0.5달러, 일반·미니 해외선물 1.99달러, 해외옵션 2.5달러 등이다.

이벤트 기간 내 1계약 이상 체결 시 수수료 할인 혜택이 6개월 자동 연장된다. 연장 혜택은 최대 3회, 2년까지 적용된다. 또 이벤트를 신청하고 1계약 이상 거래하면 스타벅스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1000계약 이상 거래한 고객 중 3명을 추첨하여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허정운 기자